

#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임재웅\* · 장석인\*\*

## 〈요 약〉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지원 조절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에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선진국 사례 비교 연구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시기의 정부지원 관련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현시점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인과 관계가 보다 깊이 있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에 어떤 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권 사회적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을 분석하여 조직의 경제적성과·사회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정부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실무자에게 학문적·실용적 가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모두 사회적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은 변수 중 진취성과 사회적 성과의 변수 간에 조절 효과로 유일하게 유의(+ )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 연구결과와 실무적 시사점은 사회적 기업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적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증기업 지원 이후 정부지원이 없어 조직성과를 위한 정부 지원의 기대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사회적 기업의 분야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증진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세분화된 육성 정책 개발에 필요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 위험감수성, 조직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정부지원

논문접수일: 2018년 05월 18일 수정일: 2018년 06월 11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0일

\* 국립공주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ljw5995@naver.com

\*\* 국립공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schang@kongju.ac.kr

## I. 서론

세계의 국가들은 시장경제 발전과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의 등장에 대한 요구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존 정책들을 변화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론이 퇴조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부활 하면서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유례없는 양적·질적 고도성장 시대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듯 사회 양극화와 계층간 빈부 격차의 심화라는 사회경제적 부산물도 함께 수반 되었다. 1997년과 2008년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높은 실업률과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심화시키며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의 사회 양극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 문제로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국정운동 과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인 문제 접근방식의 해결 방법보다는 사회 영역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 구체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경제의 대안적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면서 고용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신광하, 2016). 이처럼 사회 영역 안에서 사회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오상환, 2018).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최조순, 2012). 가난한 여성들에게 소액신용대출 사업을 시행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잡지 출판·판매로 노숙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영국의 ‘빅 이슈’, 정부와 가전제품 회사로부터 받은 가전제품 재활용사업을 하는 프랑스의 ‘앙비’ 등이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이다(최조순, 2012).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긴급 처방책의 하나로 정부가 공공근로사업(1997년)을 전개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2000년)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2003년)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나, 보다 안정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오상환, 2018). 따라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연도인 2007년에 55개 기관을 인증하였고, 이후 2018년 4월 현재 누계 기준으로 총 1,937개의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은 양적부분에서 괄목한 수준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성 측면에서 아직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정부의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광우, 2008; 김성기, 2010; 이용탁, 2012).

그러나 이런 개념은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어서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특성이 배제된 것일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 하는 혼합형 경제 조직이다(오상환, 2018). 정부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스로의 노력의 부족이나 성장 엔진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최조순, 2012).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설립 시 최소한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조직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기업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의 부재가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장 동력의 역할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할 수 있을 것이다(최조순, 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는 단순히 어떤 조직의 경영자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과 같은 특별한 구조의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역량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고 하였다(이용탁, 2009). 사회적 기업의 조직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이용탁, 2009; Dees, 1998; Weerawardena and Mort, 2006)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발휘로 창출되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두 요인의 관계를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어떻게 사회적 기업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각 구성요인들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최조순, 2012).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남·대전·세

종지역의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높일 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이 조절효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충청권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기업의 조직성과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정책 개발에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 기업의 개념 정의는 최근 상업적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DTI, 2002). 이윤재 (2010)는 흔히 사회적 기업을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이나 “영리 목적의 사회사업” 등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의 역량, 역사적 경험, 문화·사회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기업을 설립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기업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arding, 2004; 김정원, 2009; 장석인 2012).

Borzaga and Defourny (2001)는 사회적 기업

을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적 관점에서 특성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되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하였으며, 의사결정권이 자본소유에 기반 하지 않고 의사결정에 사회적 기업의 활동을 통하여 영향 받는 사람들의 참여와 제한적 이윤배분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지속적인 생산을 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율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 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및 최소한의 유급노동자 등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영업활동이나 위험감수적인 활동 등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은 모두 기업의 시장지향적인 활동 중의 하나이며 최소한의 유급노동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시장에서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역시 수익과 자립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Anderson & Jack, 2002; 장석인, 2012).

##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1980년대 초반 아쇼카 재단의 설립자 Bill Drayton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Sharir and Lemer(2006)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제약 받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시각차가 반영되고 있다(강수영·홍아정, 2013).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이용탁, 2009; 배귀희, 2011; 최조순, 2012; 최윤미 외, 2015; 신광하, 2016)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오상환, 2018). Borins(2000)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특질 및 자질과 같은 심리적 속성이나 행동, 활동과정 등의 기능적 속성으로 정의된다고 하였다(Borins, 2000; Bornstein, 2007). 또한 Mort et al.(2003)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혁신적 성향, 진취성, 위험감수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하였으며, Mair and Marti(2006)는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통하여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과 이를 통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등 다양하게 개념화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 최무현(2013)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신뢰성, 통합,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팔로워 몰입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으며, 이세정(2015)은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활동이나 조직 내부의 운영 및 전략 의사결정방법 등과 관련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문남희, 2017).

또한 허봉선(2015)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기업가와 기업 구성원 전체의 사회적 가치창출 행동을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정의하며 개인의 리더십 자질의 관점에서 개념화하였다.

즉, Mair and Marti(2006)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사회적’과 ‘기업가정신’이 결합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남희, 2017).

###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위 구성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여 기존의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을 들고 있었다(박진아, 2012).

진취성(proactiveness) Li et al.,(2007)는 변화에 대한 인식과 자발적인 경쟁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기업 환경변화 창출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예상과 경쟁에서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진취성은 상대 조직들의 새로운 프로그램, 정책 및 서비스를 수행하기 이전에 실행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Lumpkin and Dees, 1996).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기존의 관념과 제도적 규칙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진취성이 요구되어진다. 진취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들은 변화의 아이콘으로서 활동한다(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시장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적절한 수익을 위한 대응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입 가능성 및 수요자 변화의 탐색 등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조직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취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위험감수성(risk-taking)은 새로운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려는 성향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혹은 가치에 대한 동기가 강하게 작동할 때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Kuratko and Hodgetts, 2004). Morris et al.(2008)은 위험감수

성은 적합하게 계산된 극단적이지 않고 통제 가능한 위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조직의 내적·외적 운영 시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위험을 분석하는 것이다(박진아, 2012).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따라오는 부정적 측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으나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일반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낮은 위험의 사업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발현된다(최준순, 2012). 선행 논문에서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위에서 설명한 전통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인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지향을 위한 여러 구성요인 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설문결과 혁신성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성을 제외한 진취성(Proactiveness)과 위험감수성(Risk-taking)을 구성요소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4. 조직성과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 및 관리가 인간의 부분요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환경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계획 및 목표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행된 활동의 결과로써, 설정된 목표에 비하여 달성된 부가가치의 결과로 정의된다(이윤식, 2007; Poister, 2003). 특히 조직성과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최문용(2008)은 경영학 분야에서는 대부분 생산성, 경제적 산출 등을 성과로 보고 있다고 하였으며, 다양한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조직성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

준만으로 모든 조직에 대한 성과 향상의 유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배귀희(2014)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는 전통적인 기업가정신의 목적인 경제적 이익추구 이외에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광우(2008)는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영리적 성과 및 공익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나누어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 4.1 경제적 성과

사회적 기업도 일반 영리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수익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시장을 지향하며, 이윤 창출을 통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특정한 재화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오상환, 2018). 영국의 통상산업부(DTI)는 '사회적 기업은 사업을 통한 수익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형태의 거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회적 목적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DTI, 2002). 사회적 기업이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최조순, 2012).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 자립이나 재정적 독립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수 있다(오상환, 2018). 아울러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가진 조직이어야 하고 시장에서 생존을 해야 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고용노동부, 2010).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환경에서 시장 영역에서의 수익 활동만으로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시장 활동을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후원금, 시민사회의 기부금, 회원 회비 등 다양한 형태로 수익창출활동을 하고 있다(오상환, 2018).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달가능한 수익의 규모, 수익의 성격, 수익의 안정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수익원의 다양성과 안정성 측면의 설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 4.2 사회적 성과

사회적 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추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 영리기업에는 제공되지 않는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지원이나 자원봉사 활동, 민간 프로 보노(pro bono) 활동, 기부금 등과 같은 공동체 차원의 지원이 행해지는 것이다(오상환, 2018). 사회적 목적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명확한 목적, 자본 소유에 기반 하지 않는 의사결정, 시민 그룹에 의해 발족된 이니셔티브, 활동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참여, 이윤 분배의 제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Defourmy, 2001).

결국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 기업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써 주어진 환경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은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선 혹은 공동체의 편익이 포함되어 있다(Peredo and McLean, 2006).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환경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회적 목적을, 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교육과 관련

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같은 공통적인 부분을 통해 사회적 목적의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최조순, 2012).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2조 및 제 8조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롭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이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다(Defourny, 2001).

## 5. 정부의 지원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의 인증 제도를 거쳐 활동하는 기업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기준에 맞추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인증 후 약 3년간 지속된다(박진아, 2012).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정부의 지원에 관련한 국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김서연(2011)은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회적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오미옥(2010)은 정부의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초기단계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함을 주장하였다. 김용태(2012)는 창업 초기 정부지원 정책의 활용도가 높으면 사회적 기업가정신, 경영역량, 조직문화 등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확

인적 요인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권 기존 사회적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정부지원이 조절변수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6. 가설설정

본 연구는 충청권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탁(2009) 및 최조순(2012)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변수를 채택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로 혁신과 진취성(Proac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설문조사 결과의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이 동일 요인으로 유효한 값을 얻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진취성과 위험감수성만을 하위요인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종속변수로써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의 경제적성과와 사회적성과를 하위변수로 설정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부에서 여러 부분에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지원 부분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에 사이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 6.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제적성과의 관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의 경제적 성과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상영(2015)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기반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하였으며, 강문실 외(2016) 연구에서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직접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용태(2012)는 사회적 기업의 창업 성과 연구에서

사회적 창업가정신이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에 의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성과의 관계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의 사회적성부분은 경제적성과를 연구한 같은 선행연구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6.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정부 지원 조절효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 간의 영향에서 정부지원이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가설은 김용태(2012) 사회적 창업가정신이 경제적·사회적 조직 성과와 사이에 정부지원이 조절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분야의 박진아(2012)의 선행연구의 정부지원 조절효과와 이상영(2015)의 정부지원의 매개효과에 대한 주장을 참고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경제적 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6: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사회적 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7: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경제적 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8: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 7.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 III. 연구방법

####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Sharir and Lerner (2006)가 주장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에 제약 받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측정은 최조순(2012)과 오현석(2015), 신광하(2016), 오상환(2018)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진취성, 위험감수성 재구성하고 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기업의 주요 조직성과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나누었으며, 정부에서 받는 지원을 정부 지원으로 조절변수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각 변수의 측정 문항은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었던 측정 문항 등을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1.1 진취성

진취성은 Kuratko and Hodgetts(2004)의 사회 변화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대응하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활동의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 1.2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구성원의 도전 성향을 의미한다(Dess and Lumpkin, 2005).로 정의하였다.

##### 1.3 조직성과

조직성과는 조직이 추구하는 사업수행의 결과로 정의하고 이상영(2015), 오상환(2018), 김용태

(2012), 이윤식, (2007), Poister(2003)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경제적성과 4개로 시장영역 매출증가, 수익이 구성, 정부지원의 의존도, 수익의 안정성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성과 4개로 지역사회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정부지원 종료 후 고용인원유지, 사회적 목적 재투자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1.4 정부지원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으로 정의하고 진행하였다. 문항은 이상영(2015)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가지고 경영 지원, 인건비 지원, 조세감면 지원 등으로 설문을 작성하고 평가척도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 2.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충청·대전·세종지역의 사회적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 변수가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에 조절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03.28.~2018.04.15.까지 300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결과에 대한 비교가 높다는 장점을 이용하였다. 또한 응답자에게 동일한 설문내용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변화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였다. 표본추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본단위는 충청권내의 사회적 기업 직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21부를 회수하고, 오류설문지를 제거한 분석 적용 설문지 195부를 가설 검정을 위한 설문지로 사용하였다. 설문문항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대답하도록 설계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소성에 대한 12문항,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의 경제성 성과에 대한 문항 4문항, 사회적 성과에

대한 문항 4문항과 조절변수로 정부지원을 5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수 중 혁신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유효한 값을 얻지 못하여 진취성과 위험감소성 항목만 독립변수로 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내용은 <표 1> 설문의 설계와 같다.

<표 1> 설문의 설계

변수	하위요인	문항수	설문 문항	출처
사회적기업가정신	진취성	5	1-1~5	Weerawadana and Mort (2006), Moshe and Lerner(2007), 최조순(2012), 신광하(2016), 오상환(2018)
	혁신성	3	1-6~8	
	위험감수성	4	1-9~12	
정부지원	정부지원	5	2-1~5	이상영(2015), 박진아(2012)
조직성과	경제적성과	4	4-1~4	최조순(2012), 오상환(2018),
	사회적성과	4	4-5~8	

측정은 인구통계학적인 조사를 위해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test)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reliability and validitytest)을 측정하고 검정방법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구성 개념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요인분석의 적용기준에 대해서 요인적재량을 ± .4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각 요인이 전체분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치를 1이상으로 하여 베리맥스 회전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값의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 분석

##### 1. 기초통계분석

우선, 충남·대전·세종지역 사회적 기업을 조사한 기초통계분석으로 성별은 여자가 105명(53.8%)남자가 90명(46.2%)로, 분포되어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76명(39.0%), 60대 이상 68명(34.9%), 40대 37명(19.0%), 30대 10명(5.1%), 20대 4명(2.0%) 순으로 주 근로 연령이 50대에서 60대 이상로 나타났으며 주 인력 73.9%가 고령층이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 93명(47.7%)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 55명(28.2%), 전문대졸 46명(23.6%), 대학원 이상이 1명(0.5%) 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는 실무자 75명(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관리자 74명(37.9%), 임원 44명(22.6%),

대표 2명( 1.0%),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가장 높은 142명(72.8%), 협동조합 27명(13.8%), 비영리단체 12명(6.2%), 사단법인 7명(3.6%) , 재단법인 1명(0.5%)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회적 기업 인증형태는 100%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기업 목적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152명(7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사회공헌 20명(10.3%), 혼합형 8명(4.1%), 기타10명(5.1%), 사회서비스제공 5명(2.6%)로 나타났다.

서비스분야로는 환경이 40명(20.5%), 사회복지가 37명(19.0%), 교육과 보건, 기타가 같이 각 32명(16.4%), 문화·예술·관광·운동이 21명

(10.8%), 간병·가사지원이 1명(0.5%)로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사회적 기업 운영기간으로는 3년~5년이 108명(55.4%)로 가장 많고 5년 이상 82명(42.0%), 3년 이하가 5명(2.6%)으로 대전충남세종지역의 대부분 사회적 기업 운영기간이 5년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종업원 수는 11~30인 이하가 62명(31.8%)로 가장 많았고 5~10인이 55명(28.2%), 50인 이상 51명(26.2%), 31~50인 27명(13.8%)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은 충남이 100명(51.3%)로 가장 많았고 대전 70명(35.9%), 세종 24명(12.3%), 기타지역이 1명(0.5%)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참여한 응답자 195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90	46.2	기업목적유형	일자리제공	152	77.9
	여자	105	53.8		사회서비스제공	5	2.6
	계	195	100		지역사회공헌	20	10.3
연령	20대	4	2.0		혼합형	8	4.1
	30대	10	5.1		기타	10	5.1
	40대	37	19.0		계	195	100
	50대	76	39.0		서비스분야	교육	32
	60대 이상	68	34.9	보건		32	16.4
	계	195	100	사회복지		37	19.0
	학력	고졸	93	47.7		환경	40
전문대졸		46	23.6	문화·예술·관광·운동		21	10.8
대졸		55	28.2	간병·가사지원		1	0.5
대학원		1	0.5	기타서비스		32	16.4
계		195	100	계	195	100	
직위	대표	2	1.0	기업운영기간	3년	5	2.6
	임원	44	22.6		3년~5년	108	55.4
	관리자	74	37.9		5년이상	82	42.0
	실무자	75	38.5		계	195	100
	계	195	100	기업종사원수	5~10인	55	28.2

기업 형태	재단법인	1	0.5	근무지역	11~30인	62	31.8
	사단법인	7	3.6		31~50인	27	13.8
	사회복지법인	5	2.6		50인이상	51	26.2
	주식회사	142	72.8		계	195	100
	비영리 민간단체	12	6.2		대전	70	35.9
	협동조합	27	13.8		충남	100	51.3
	기타	1	0.5		세종	24	12.3
	계	195	100		기타	1	0.5
인증 형태	인증 사회적기업	195	100	계	195	100	

### 1.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 2.1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다음 <표 3>는 독립변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여러 하위 변수 중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독립변수를 2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Cronbach Alpha 값

이 가장 낮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위험감수성에서 .70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신뢰수준이 만족스럽다 할 수 있으며, 요인분석 모델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KMO 값을 확인한 결과 0.7566,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가 275.267203 ( $p < 0.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모델의 적합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검출요인의 누적 분산설명력은 63.092%로 나타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표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성분		신뢰도
	1	2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1	.644	.127	.700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2	.667	.304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3	.738	.287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4	.763	.004	
사회적 기업가정신(진취성)1	.201	.868	.777
사회적 기업가정신(진취성)2	.155	.889	
고유치	2.720	1.066	
분산(%)	45.328	17.765	
누적분산설명력(%)	45.328	63.092	

신뢰도(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0.7566

유의도(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275.267203  $p < 0.001$

## 2.2 정부지원 및 사회적 기업 조직성과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다음 <표 4>는 종속변수 조직성과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및 정부지원의 측정항목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요인은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로 3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신뢰도를 판단을 위한 Cronbach Alpha 값이 가장 낮은 조직성과의 사회적 성과에서 0.602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사회과학에서의 신뢰수준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요인분석 모델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KMO 값을 확인한 결과 0.84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가 376.373(p<0.001)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모델의 적합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확인하면 검출요인의 누적 분산설명력은 59.698%로 나타났다.

<표 4> 조직 성과와 정부지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변수	성분			신뢰도
	1	2	3	
정부지원1	.218	.775	.036	.628
정부지원2	.112	.642	.354	
정부지원4	.160	.719	.154	
조직성과(경제적성과)1	.717	.280	-.019	.645
조직성과(경제적성과)3	.772	.002	.199	
조직성과(경제적성과)4	.635	.372	.147	
조직성과(사회적성과)1	-.001	.170	.890	.602
조직성과(사회적성과)3	.443	.250	.496	
조직성과(사회적성과)4	.442	.125	.527	
고유치	3.474	.983	.915	
분산(%)	38.604	10.923	10.171	
누적분산설명력(%)	338.604	49.527	59.696	

신뢰도(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 0.845

유의도(Bartlett의 구형성 검증) : 376.373, p<0.001

## 3. 가설검증

### 3.1 상관관계분석

가설 검증을 위해 예비분석의 일환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표와 같다. 분석결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의 변수들과 다른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면,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과 정부지원은 .637, 조직성과의 경제

적성과는 .501, 사회적성과는 .420,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도 모두 .000 으로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 역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두 변수가 동일한 변수로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8보

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표

변수		1	2	3	4	5
사회적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상관계수	1				
사회적 기업가정신(진취성)	상관계수	.425**	1			
정부지원	상관계수	.637**	.427**	1		
조직성과(경제적성과)	상관계수	.501**	.245**	.533**	1	
조직성과(사회적성과)	상관계수	.420**	.393**	.527**	.517**	1

\*\* p<0.01

### 3.2 가설검증

#### 3.2.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제적성과 가설검증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y=2.064+.490x_1+.042x_2$ 이며, 검정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는 .502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

고  $R^2=.252$ 로써 25.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Durbin-Watson 값은 1.598로써 2에 매우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6>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6>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064	.308		6.693**	.000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490	.070	.484	7.017**	.000	.820	1.220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	.042	.073	.040	.580	.563	.820	1.220

R=.502,  $R^2=.252$ , 수정된  $R^2=.244$   
 F=32.348,p=.000,Durbin-Watson=1.598

\*\* p<.01 이상 . \* p < .05 이상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의 t값은 .580(p=.563)로 신뢰수준(p<.05이상)이 낮아 조직성과의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경제적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강문실(2016) 연구 및 박진아(2012)의 문화·예술 분야를 연구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이라

도 기업의 목적과 분야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의 t값은 7.017(p=.000)의 영향력을 가지고 99%이상의 신뢰수준에서 경제적 성과에 유의(+ )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은 채택되었으며, 공선성통계량 역시 공차한계가 .820이고, VIF값이 1.220으로써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강문실(2016)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이 경제적성과에 유의한 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한 것과 같은 결과가 도출 되었다.

### 3.2.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성과 가설검증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y=1.837 + .329x_1 + .293x_2$  이고, 검정결과 독립변수와 조직성과의 사회적 성과와의 상관계수는 .482로 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R^2=.232$ 로써 23.2%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Durbin-Watson 값은 1.871으로써 2에 매우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설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표 7>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7>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837	.329		5.586**	.000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329	.074	.309	4.420**	.000	.820	1.220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	.293	.078	.262	3.747**	.000	.820	1.220

R=.482,  $R^2=.232$ , 수정된  $R^2=.224$   
 F=29.064,p=.000,Durbin-Watson=1.871

\*\* p<.01 이상 . \* p < .05 이상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t값은 3.747(p=.000)로 영향력을 가지고 신뢰수준(p<.01 이상)은 99%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선성통계량 역시 공차한계가 .820이고, VIF값이 1.220으로써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어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조직 성과의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강문실외(2016)의 진취성이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한 내용과 같은 결과로 도출되었고, 본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 t값은 3.747

(p=.000)로 영향력이 있으며 신뢰수준(p< .01 이상)은 99%로 신뢰도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선성통계량 역시 공차한계가 .820 이고, VIF값이 1.220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은 채택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강문실외(2016), 이상영(2015)의 위험감수성이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구한 내용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의 분야 및 지역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 3.2.3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정부 지원 조절효과 검증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경제적성가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3단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R<sup>2</sup> 값이 단계별 변화가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로 결과를 얻었지만 3단계의 유의확률이 신뢰수준(p< .05이상)을 만족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다. 이 결과는 박진아(2012)가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진취성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이 조절효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8>은 통계 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8>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경제적성과의 정부지원 조절효과

모형	R	R <sup>2</sup>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245a	.060	.060**	12.372	.001	
2단계	.533b	.284	.224**	60.003	.000	
3단계	.533c	.284	.000	.119	.730	1.744

- a.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 b.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정부지원,
- c.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정부지원, 진취성정부지원조절

\*\* p<.01 이상 . \* p < .05 이상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사회적성가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R<sup>2</sup> 값이 단계별 변화가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신뢰수준(p< .05이상)을 만족하여 95%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정부지원이 두 변수 간에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출 되지 않은 결과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9>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사회적성가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R<sup>2</sup> 값이 단계별 변화가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이 신뢰수준(p< .05이상)을 만족하여 95%의 신뢰도를 갖는다.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정부지원이 두 변수 간에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도출 되지 않은 결과라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9>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9> 사회적 기업가정신 진취성과 사회적성과의 정부지원 조절효과

모형	R	R <sup>2</sup>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393a	.154	.154**	35.213	.000	
2단계	.559b	.312	.158**	44.081	.000	
3단계	.572c	.327	.015*	4.304	.039	1.929

- a.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 b.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정부지원
- c. : 사회적기업가정신\_진취성, 정부지원, 진취성정부지원조절

\*\* p<.01 이상 . \* p < .05 이상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장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조절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3단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R<sup>2</sup> 값이 단계별 변화가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얻었지만 3단계의 유의확률이 신

뢰수준(p<.05이상)을 만족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다. 이 결과는 박진아(2012)가 연구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진취성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지원이 조절효과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10>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10>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의 정부지원 조절효과

모형	R	R <sup>2</sup>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501a	.251	.251**	64.582	.000	
2단계	.572b	.328	.077**	21.931	.000	
3단계	.575c	.331	.003	.892	.346	1.740

- a.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 b.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정부지원
- c.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정부지원, 위험감수성정부지원조절

\*\* p<.01 이상 . \* p < .05 이상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사회적 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단계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R<sup>2</sup> 값이 단계별 변화가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3

단계의 유의확률이 .62로 신뢰수준(p< .05이상)을 만족하지 못하여 기각 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는 영향이 있지만 정부지원이 변수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1>은 통계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표 11> 사회적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의 정부지원 조절효과

모형	R	R <sup>2</sup>	통계량 변화량			Durbin-Watson
			R <sup>2</sup> 변화량	F변화량	유의확률 F 변화량	
1단계	.420a	.176	.176**	41.296	.000	
2단계	.538b	.290	.113**	30.682	.000	
3단계	.550c	.303	.013	3.513	.062	1.850

a.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b.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정부지원

c. : 사회적기업가정신\_위험감수성, 정부지원, 위험감수성정부지원조절

p<.01 이상\*\*, p < .05 이상\*

이러한 정부지원 조절효과에 대한 모든 결과는 선행 연구 김용태(2012)의 정부지원 활용도가 높고, 낮은 집단의 창업 당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조직성과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정부지원에 조절 효과가 모든 항목에 나타나지 않은 이

유로 조사 대상이 충청권 사회적 기업의 인증 이후 3년 이상의 기업이 97.4%로 정부지원 기간이 지나서 자체적인 조직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표 12>는 본 연구의 가설 전체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작성하여 보았다.

<표 12> 가설 검증 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가설 1: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정결과
가설 3: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은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4: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와 정부지원 조절효과	검정결과
가설 5: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경제적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기각
가설 6: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사회적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채택
가설 7: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경제적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기각
가설 8: 정부지원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과 사회적성과에 조절효과를 줄 것이다.	기각

## V. 결 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양극화 문제가 사회의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소외계층의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지원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많은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의 조직성과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우려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와 기업에서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대전·세종지역 사회적 기업 창업 후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 즉,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에 조절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로 사회적 기업이 조직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정부지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요인 중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었지만, 진취성은 경제적성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요인 중 위험감수성 및 진취성은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요인과 조직성과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진취성과 사회적성과의 영향에서 정부지원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와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부지원의 조절 효과가 없게 나타났다.

본 논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강문실외, 2016; 이용탁, 2011; 장성희외, 2010; 이광우, 2008)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적 기업의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기업의 인증 초기

나 정부지원이 끝난 3년 이상의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기업의 발전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다. 다만, 진취성과 경제적성과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기업 인증 3년 이상의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느끼는 진취성과 경제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요인과 조직성과 간에 영향관계에서 조절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진취성과 사회적성과의 영향에서 정부지원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경제적 성과와 위험감수성은 사회적 성과에 정부지원의 조절 효과가 없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김용태 (2012)의 정부지원 활용도가 높고, 낮은 집단의 창업 당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정부지원에 조절 효과가 모든 항목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조사 대상이 충청권 사회적 기업의 인증 이후 3년 이상의 기업이 97.4%로 정부지원 기간이 지나서 자체적인 조직성과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이 인증 후 기한 제한으로 지원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하도록 정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분화된 정부지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 연구결과와 실무적 시사점은 사회적 기업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적용을 진행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나 사회

적 성과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증기업 지원 이 후 정부지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분야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증진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세분화된 육성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조사 대상의 구분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이 충분하다면 대상을 경영자와 종업원으로 나누어 연구를 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 설문조사 사회적 기업 모두가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정부지원이 끝난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지원조절 효과 조사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기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연구에서 다양한 변수들을 활용하여 보다 넓은 분야를 연구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실증 분석을 했다면 유의한 결과들을 도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이런 부분을 보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1. 강문실·양성(2015),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제주지역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3), 17-35.
2. 강수영·홍아정(2013), “사회적 기업가정신 실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HRD연구*, 8(1), 2-27.
3. 김서연(2011), “직업재활시설의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 인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성기(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용태(2012), “사회적 기업의 창업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부지원정책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김용호·송경수(2013),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경영과 정보연구*, 32(3), 263-283.
7. 김종수(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김현(2008), *정부지원사업이 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소기업청 정책연구자료.
9. 박재환·김용태(2012),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개발,” *상업교육연구*, 24(4), 75-93.
10. 배귀희(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보*, 15(2), 199-227.
11. 배귀희·박시남·이운재(2014),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251-276.
12. 신광하(2016),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전략운 영요소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오미옥(2009),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연관된 지속가능 성장 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1, pp.79-98.
14. 오상환(2018),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 기업의 시장지향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이광우(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이동수(2010), “한국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진흥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이영수·길현종(2016),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35(5), 123-146.
  18. 이용탁(2009),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기업연구*, 2(2), 5-28.
  19. 이용탁(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8(3), 129-150
  20. 이인재(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 109-138.
  21. 이윤식(2007),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부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 1-30.
  22. 장석인(2012),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비교, 유럽3개국(프랑스·독일·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리뷰*, 3(3), 75-95.
  23. 장성희·반성식(2010),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3(6), 3479-3496.
  24. 정선희(2007),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행복한 일 자리 만들기, 21-31.
  25. 최무현·정무권(2013),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성과 간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창조와 혁신*, 6(2), 29-55.
  26. 최문용(2008), “개혁적 조직인사제도가 조직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7. 최윤미·류정현·이상훈·박한림·오현석(2015),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HRD연구*, 17(1), 189-221.
  28. 최조순(2012),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9. 한은수·정범구·이상빈·성을현(2017), “기업가정신의 적용수준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기업가지향성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6(2), 157-185.
  30. Borins, S.(2000), “Loose cannons and rulebreakers, or enterprising leaders?, Some evidence about innovative public manage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498-507.
  31. Bornstein, D.(2007), *How to Change the World, Social entrepreneur and the power of new ideas*, UK: Oxford University Press.
  32. Borgaza, C. and Defourny, J.(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 New York :Routledge.
  33. Dees, J. G.(1998), “The Mean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www.gsb.stanford.edu/service/news/DeesSoCenterPaper.html](http://www.gsb.stanford.edu/service/news/DeesSoCenterPaper.html).
  34. Defourny, J.(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NY: Routledge.
  35. Dess, G. G. and Lumpkin, G. T.(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36. DTI(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 (2002), *Social Enterprise Strategy for Success*, London: DTL.
37. Haugh, H.(2005), "A research agenda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Journal*, 1(1), 1-12.
  38. Kuratko, D. F. and Hodgetts, R. M.(2004),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and Practice*, Mason, OH, South-Western Publishers.
  39. Leadbeater, C.(1997), *The rise of the social entrepreneur*, Lodon: Demos.
  40. Lumpkin, G. T. and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s*, 2(1), 135-172.
  41. Mair, J. and Marti, I.(2006),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 source of explanation, prediction, and deligh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36 - 44.
  42. Morris, M. H., Kuratko, D. F. and Covin, J. G (2008),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Second Edition, Thomson South-Western.
  43. Mort, G. S., Weerawardena, J. and Carnegie, K.(2003),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s conceptu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 76-88.
  44. Peredo, A. M. and McLean, M.(2006), "Social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55-65.
  45. Porter, Michael E.(1980), *Competitive Strateg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46. Prabhu, G. N.(1999), "Social entrepreneurial 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areer Management*, 4(3), 140-145.
  47. Praszquier, R., and Nowak, A.(2012), *Social entrepreneurship :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48. Rauch, A., Wiklund, J., Lumpkin, G. T. and Frese, M.(2009),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n assessment of pas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761-787.
  49. Thompson, J. L.(2002), "The world of the social entrepreneu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5(5), 412-431.
  50. Weerawardena, J. and Sullivan Mort, G. (2006), "Investiga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multidimension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41(1), 21 - 35.
  51. Wei-Skillern, J. C., Austin, J. E., Leonard, H. B. and Stevenson, H. H.(2007), *Entrepreneurship in the social sector*,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Abstract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

Lim, Jae-Woong<sup>†</sup> · Chang, Sug-In<sup>\*\*</sup>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ase studies for specific companies and studies on Social entrepreneurship have been carried out in recent years.

As the interest in social enterprises is increasing due to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eply, an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provide government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o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members of the social enterprise in Chungcheong area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er will give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to practitioner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hown that the risk sensitivity of social entrepreneurship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Proa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and Risk-tak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government support has only a positive effect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variables of enterprising and social performance among the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entrepreneurship in social enterprises i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refore, if managers of social enterprises continue to educate and apply social entrepreneurship to their members, The social and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will increase, which will hel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In addition,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social enterprises, there is no expectat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organizational performance because of the lack of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fter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ljw5995@naver.com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nd to develop the government 's fine - tuned upbringing policy that can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Key Words: Social enterprise, Social entrepreneurship, Proactiveness, Risk-tak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Economic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Government support